



주간통일정세 2008-37(2008.09.10 ~ 09.15)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37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추석 전후 모습 안 드러내(9/15, 연합뉴스)**
 - 와병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석을 전후해서도 15일 오후까지 공개활동을 했다는 북한 언론매체의 보도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가 32일째 실종된 상태
- **김정일, 中군의원 5명에게 수술받아(9/15,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8월 14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북한의 요청으로 중국 정부가 파견한 5명의 군의원들로부터 수술을 받았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4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교도통신은 익명의 중국 소식통들을 인용, 김 위원장이 중국 군의원들로부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단계에 있으나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는데 장애를 겪고 있음.
- **김정일, 금년 4월부터 가끔 의식 잃어(9/14, 마이니치신문)**
 - 와병설이 나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금년 4월부터 가끔 집무중 의식을 잃는 등 심각한 상태여서 당무 등 중요 사안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4일 보도, 신문은 북한의 내부 사정에 밝은 믿을 만한 중국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
 - 김 위원장은 야간과 새벽에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5, 6월에는 지병이 상당히 악화돼 밤에 일할 수 없게 되고 판단력도 떨어져 북한이 6자회담 등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그의 병세와 관계가 있다고 신문은 보도
 - 김 위원장이 의식을 잃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 시작한 지난 4월은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방문을 앞두고 있던 시기로, 중국 차세대 지도자의 평양 방문을 어떻게든 성공시키기위해 김 위원장이 회담까지 2개월 동안 집무를 대폭 축소한 채 치료와 휴양에 중점을 뒀다고 신문은 밝힘. 이 관계자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2007년 여름부터 신장과 심장 등 복수의 장기에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병세가 서서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 2007년 4월말 심장수술(9/13, 아사히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봄 독일인 의사로부터 심장수술을 받았다고 아사히신문이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서울발로 13일 보도



- 신문은 “심장수술과 이번 뇌질환으로 추정되는 질병과의 연관성은 불분명하다”며 “김 위원장이 지난해 4월 말 심장 혈관을 넓히는 수술을 받아 2주 정도의 회복기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이같은 사실은 수술을 집도한 독일인 의사로부터 한국측이 질환 상태를 문의해 극히 일부에게 보고됐으며 2007년 6월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은 “독일인 의사가 북한을 방문했지만 수술 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고 신문은 보도
 -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상태와 관련, “와병인 것은 확실하지만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 관계자, 김정일 양치질할 수 있는 상태(9/12, 연합뉴스)**
 - 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건강을 점차 회복해 양치질을 할 정도의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
 - 이 관계자는 “일단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뇌혈종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북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우리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이 쓰러지고 2~3일 이후에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
- **해외 김정일 이복동생들, 5월이면 평양 방문(9/12, 자유아시아방송)**
 - 해외공관에서 생활하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녀 이복동생들이 “예년처럼” 지난 5월 같은 시기에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됨.
 - 김 위원장의 이복 남동생인 김평일 폴란드 주재 대사가 지난 5월 중순부터 북한에서 머물다 북한 정권수립 60주년인 9.9절 직전인 지난 주말 귀임해 대사관저에서 9.9절 기념연회를 여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폴란드 외교소식통이 11일 보도, 연회에는 김 대사와 아들만 보였을 뿐 부인과 딸은 참석하지 않음.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 김 위원장의 이복 여동생으로 김광섭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의 부인인 경진씨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난 5월 남편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다고 보도
 - 북한에는 김평일 대사 남매의 어머니인 김성애(84)씨가 생존해 있어 이들의 정기적인 북한 귀환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추정됨.
- **北유엔대표부, 김정일 와병설 ‘허튼 소리’(9/11,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뇌수술을 받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와병설에 대해 “허튼 소리”라고 일축, 이 관계자는 이어 본국에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사업하기 바빠서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말하고 “더 이상 묻지 말라”며



자리를 피함.

- 신신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도 김 위원장의 와병설을 묻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대표부 건물을 빠져나감.

● **김영남, “문제없다” 이례적 언급(9/10, 교도통신)**

- 북한의 명목상 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0일 일본 교도(共同)통신 인터뷰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밝힘.
- 교도통신 측은 “이번 인터뷰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불거지기 전에 이미 북한 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예정됐던 것”이며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관한 언급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왔다고 밝힘.

● **김정남, 7월말부터 평양 체류중(9/10,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37)씨가 지난 7월말부터 주거지인 중국 베이징을 떠나 평양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북수의 외교소식통은 10일 “중국에 거주하던 김정남씨가 7월말 평양에 들어간 뒤 아직 체류하고 있다”며 “정남씨가 예전에도 평양을 들락거리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오래 머무는 경우는 드물다”고 언급
- 정남씨는 베이징에 근거지를 두고 마카오, 유럽 등도 들락거리며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등에 평양을 방문해 왔으며, 체류기간은 길어야 1개월을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짐.
- 한 소식통은 또 “북한이 환자의 나이를 말해주면서 프랑스에서 심장외과 의사를 초청했다”며 “이들 의사는 현재도 평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

나. 정치 관련

● **北, 어떤 광풍 불어도 조국 지킬 것(9/15,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 속에 평양방송은 15일 “우리 인민들은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사회주의 조국을 끝까지 지키고 빛내어갈 것”이라고 강조

● **김정일 중심 ‘일심단결’ 강조(9/14, 노동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와병중인 가운데 노동신문은 14일 ‘천만심장이 하나로 고동친다’ 제목의 정론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일심단결을 강조
- 정론은 정권수립 60주년일 맞아 진행된 노동적위대 열병식에 대해 “그날의 환호성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김정일 장군님께 드린 최대의 경의였고 혁명의 수뇌부를 끝까지 따르려는 천만심장의 불같은 맹세의 합창”이었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 펼쳐갈 선군조선의 미래에 대한 힘있는 선언이었다”고 자평



- 신문은 “단결의 중심은 수령이고 수령의 위대성에 의해 단결의 위대성과 공고성이 결정된다”며 “김정일 동지, 사상과 영도력에 있어서나 덕망과 인품에 있어서나 이 세상 제일이신 그이를 단결의 중심에 모심으로써 이 땅에는 일심단결의 화원이 펼쳐질 수 있었다”고 김 위원장의 ‘위대성’을 강조

● 김정일 덕분에 값 높은 삶 누리(9/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공화국의 품 속에서 누리는 조선 인민의 값높은 삶’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북한 주민들이 “세기를 이어 값 높은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 신문은 북한의 식량배급제와 무상 교육·치료제 등을 언급한 뒤 “우리 인민은...자식을 공부시킬 걱정, 병이 나면 치료할 걱정을 모르고 살아왔다”면서 “지난 10여 년 간 것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강조
- 신문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우리 내부에 썩어빠진 부르주아 생활풍조를 들이밀려고 반동적인 사상문화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더욱 악랄하게 벌이고 있다”고 주장

● 北조평통, ‘국방개혁 2020’ 비난(9/12,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2일 ‘국방개혁 2020’ 발표 3주년을 맞아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난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미국산 무기구매 지위 상승, 합동군사부 설치 등을 거론하면서 “무분별하고 도발적인 무력증강과 북침전쟁책동으로 북남관계는 더욱 격화되고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 조평통은 “외세와 야합하여 침략적인 무력증강과 전쟁소동을 벌이면서 평화에 대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적대시하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대화’에 대해 떠드는 것 역시 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난
- 조평통은 이어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핵전쟁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는 이명박 패당의 범죄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에 대해 철저히 계산하고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

● 北, 南동포여러분, 北은 식량해결 투쟁중입니다(9/12, 평양방송)

- 북한의 대남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이 “남조선 동포 여러분”이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낯설지 않으나, 모두 북



한체제 선전, 대남·대미 비난, 북한의 통일방안 선전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성이 덜한 북한 농민들의 가을 수확 분투를 소재로 한 이날 방송은 매우 이례적

- 평양방송은 “남조선 동포 여러분, 지금 공화국 북반부 안의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세계적인 식량위기와 관련해서 자체의 힘으로 알곡 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고 있다”고 소개
- 방송은 봄과 여름 내내 “애써 가꾼 낱아을 한알도 허실함이 없이 말끔히 걷어들이기 위한 가을걷이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준 것은 현 시기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시고 있다”며 평남 삼봉협동농장 농민들, 평양시 락랑구역 농기계작업소 근로자들의 추수준비 상황을 소개

● 北, 김정일의 ‘간고분투’ 집중 선전(9/12,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12일 ‘공화국 창건 60돌을 성대히 경축한 기세로 총돌격하자’ 제목의 사설에서 김 위원장이 “공화국 창건 60돌이 가지는 중대한 의미를 깊이 헤아리고...정초부터 끊임없이 현지지도 강행군 길을 이어가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이끌어들었다”고 강조
- 조선중앙방송도 12일 ‘낙월에도 가는 길’ 제목의 보도물에서 김 위원장이 1998년 1월 한겨울에 험난한 자강도 지역을 시찰했고, 이를 계기로 경제구호인 ‘강계정신’이 나온 사실을 강조하며 그때부터 10여년간의 시찰을 “인민과 함께 헤쳐온 강행군의 나날”이라고 찬양

● 9-9절 정권창건 60주년 행사, 준비했던 인민군 열병식 생략 및 행사 축소(9/9, 조선중앙TV)

- 9일 북한의 정권 창건 60주년 기념행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불참 탓인지 당초 예상보다 축소, 북한은 당초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었음. 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위성정보 등을 근거로 “북한이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언급했음.
- 북한은 그러나 이날 오전 인민군 열병식 등 준비했던 행사를 치르지 않고 오후에 정규군이 아닌 노농적위대, 붉은 청년 근위대와 평양시민들의 퍼레이드만 진행
 - * 정권 창건 50주년과 55주년 때는 오전에 군 열병식과 시민 퍼레이드, 오후에 무도회와 햇불행진을 진행
- 조선중앙TV는 오후 8시 정규뉴스 시간까지도 각국 정상들의 축전 등만 소개한 채 퍼레이드와 김정일 위원장의 동정은 언급하지 않음. 중앙TV는 이후 오후 9시가 돼서야 노농적위대 등의 퍼레이드 사실만을 처음 보도했으며 이때도 김 위원장 동정 소식은 언급되지 않음. 조선중앙TV가 녹화방송으로 중계한 퍼레이드에서는 김영춘 인



민군 총참모장이 열병보고를 했으며 단상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모습만 보였음.

* 북한은 작년 4월 군 창건 75주년 때는 오전에 인민군 열병식을 갖고 정오에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행사를 소개, 2005년 10월 노동당 창건 60주년에는 오후 3시에 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중앙TV를 통해 열병식 행사를 녹화 중계한 바 있음.

다. 경제 관련

● 노동신문, 추수 “영농전투” 독려(9/15, 노동신문)

-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신문은 15일 추수철을 맞아 “가을걷이 전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독려

● 北학술지, 식량수요 예측 정확성 강조(2008년 3호, 사회과학원 학보)

- ‘사회과학원 학보’ 2008년 3호에서 식량문제를 최단기간 해결하기 위해선 “식량수요에 대한 전망 타산(계산)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
- 학술지는 “현 시기 나라의 식량문제 해결이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이며 “식량문제 해결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지만 “식량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하여 과학적인 타산이나 목표도 없이 무작정 내밀어서는 오히려 나라의 전망적인 식량문제 해결에 혼란과 부정적 후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

● 北, 평양 국제상품전 개최(9/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국제 경제교류 차원에서 개최하는 제4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가 9월 22일 개막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25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전람회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덴마크, 독일, 스웨덴, 싱가포르, 영국, 인도네시아, 쿠바, 폴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 150여 개 기업체가 참가할 예정임.
- 전람회에는 각종 공작기계와 전기·전자설비, 운전(운수)기재, 석유 화학제품, 의약품, 일용품, 식료품 등이 출품되며 무역상담과 교류, 경제협력을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고 통신은 보도
* 제3차 전람회는 2007년 10월 8~11일까지 16개국 150여 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

● 北, 9·9절 때 ‘명절상품’ 공급(9/11, 조선신보)

- 북한이 정권수립 60주년을 기해 술과 과자, 담요, 운동화 등 ‘명절상품’을 전 주민들에게 국정가격 판매 방식으로 “골고루” 공급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신문은 “명절상품은 직장·직위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에 골고루 공급됐다”면서 “전쟁노병들과 영예군인들,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해 바깥출입을 못하는 세대들, 직장일이 바쁜 세대들에 대해서도 송달



봉사가 진행됐다”고 보도

- 특히 평양시의 경우 “상품은 각 동(洞)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및 공업품 상점에서 국정가격으로 판매됐다”며 “판매는 세대마다 식구수 등이 기입된 ‘우리가정 수첩’에 준해 이뤄졌다”고 소개, ‘우리가정 수첩’은 세대별로 어떤 상품이 언제, 어느 정도 공급됐는지를 기록한 장부임.

● **北, 외화별이용 송이버섯 밀매단속 강화(제208호, 오늘의 북한소식; 9/10, 연합)**

- 북한이 최근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송이버섯의 밀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10일 주장
- ‘오늘의 북한소식’ 제208호에서 노동당 중앙당은 “송이버섯을 비법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은 혁명자금을 뺏아내는 범죄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처해 혁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송이버섯을 비롯한 외화별이를 잘하여 쌀을 보장해야 한다”며 “송이버섯 단속과 관련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한다”는 방침을 하달

라. 군사 관련

● **北 동창리에 새 미사일기지 건설(9/11, AP통신)**

- 북한이 기존에 알려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기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이 향상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를 8년 전부터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새로 건설했다고, 미국의 AP통신이 군사전문가를 인용해서 11일 보도, AP통신은 동창리 기지가 이동 가능한 발사대와, 탄도미사일이나 로켓을 지지할 수 있는 10층 높이의 타워로 구성돼 있으며, 인공위성의 발사도 가능하다고 보도
- 한편, 이상희 국방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 보고에서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와 관련, “잘 알고 있다”며 “현재 80%의 공사가 진척 중이며,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또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관리는 AP통신에 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새 미사일 기지의 존재 사실을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도
- * 북한은 현재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창리 기지의 존재는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음.

마. 사회·문화 관련

● **美단체, 北 어린이 영양개선 사업 시작(9/15,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의료지원단체인 미국의 샘(SAM)복지재단이 북한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대체식품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



- 샘복지재단은 국경없는 의사회 등 국제지원단체들과 협력해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대체식품 ‘샘 뉴트리넛 페이스트(SAM Nutrinut Paste)’를 300명에게 3개월간 시범 보급
 - 재단측은 사전 작업을 위해 8월 9일 관계자 4명이 황해도 지역을 방문, 2~6세 어린이 150여명의 건강 상태를 검진하고 대체식품을 우선 보급했으며, 몇차례 더 방북해 식품을 공급받은 어린이들의 영양개선 효과를 관찰한 뒤 구체적인 지원량과 기간 등을 정할 계획
- **北 ‘대항소상’ 씨름경기 개막(9/13, 조선중앙TV)**
 - 북한관 전국 천하장사 씨름대회인 제6회 ‘대항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가 추석을 맞아 13일(~17일까지) 평양시 룡라도 씨름경기장에서 개막됐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 **北주민 대부분 ‘金건강이상’ 모르는 듯(9/13, 조선일보)**
 - 김 위원장이 지난 9.9절 행사에 불참한 사실은 9일 밤 조선중앙TV의 녹화중계를 통해 북한 전역에 알려졌다. 그러나 그 불참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 때문이라는 사실이나, 김 위원장의 몸 상태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보도되지 않는 등 철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음. 또 인터넷·전화 등 통신매체 접근이 쉽지 않은 북한 사회의 특성상 대부분 주민은 아직까지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제7차 전국농업근로자민족경기대회 개최(9/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 기념 제7차 전국농업근로자민족경기대회와 제5차 전국농업근로자농악무경연이 8일부터 1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800여명의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평안북도가 종합 1등을 차지
 - **정권 수립 60주년 경축 체육경기 폐막(9/12, 조선중앙통신)**
 - 정권 수립 60주년 경축 체육경기가 12일 평양 청춘거리 농구경기장에서 폐막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 폐막식에는 김종린 당 중앙위 비서와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 등이 참석
 - **평양국제영화축전 17~26일 개최(9/12, 조선중앙TV)**
 - 제11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고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
 - 이 방송은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는 세계 40여개 나라와 국제기구의 70여개 단체에서 출품한 영화들이 상영된다”며 “축전에서는 장편예술영화와 기록 및 단편영화 경쟁, 특별상영, 통보상영을 하게 되고 조선영화 시사회도 있게 된다”고 보도
 - * 북한의 유일한 국제영화제인 평양국제영화축전은 1987년부터 2~



3년 주기로 열리고 있으며 제10차 축전은 2006년 9월 개최되었음.

- **조선우표전시회 개최(9/11, 조선신보)**
 - 정권 수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조선우표전시회가 5일 조선우표전시관에서 개막해 12일까지 열린다고 조선신보가 소개
- **北방송, 남북전 무승부 보도(9/11, 조선중앙방송)**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성 김, 北 핵시설 복구하면 중대한 실수(9/11, 연합)**
 - 성 김 미 북핵담당특사(대사급) 내정자는 10일(미국시간) “미국은 북한의 핵불능화 프로세스가 다시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6자회담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언급
 - 성 김 내정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만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 이어 그는 “우리는 6자회담 당사국들과 평양의 리더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북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다”고 주장
 - 그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복구에 나선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영변 시설에서 일부 장비가 옮겨진 것 등은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심각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나. 북·중 관계

- **北·中 교역규모 올해 20억불 돌파 전망(9/14, 중국 상무부 아주사)**
 - 북·양국 규역규모가 올해에도 큰 폭으로 증가해 20억달러 수준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중국 상무부 아주사(亞州司)에서 발표한 2008년 1~7월 대(大) 아시아 교역통계에 따르면 2008년 7개월 간 북중 교역규모는 총 14억2천300만달러로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3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대북한 수출은 10억100만달러로 35.2% 증가했으며, 수입은 4억2천300만달러로 24.3% 늘어남. 이런 추세라면 양국 규역규모는 2007년 약 19억8천만달러에서 2008년에는 무난히 2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 올해 1~7월 중국의 대북무역 흑자는 4억달러에서 5억7천800만달러로 증가, 양국 간 무역역조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다. 북·러 관계

- **러시아, 영해 침범 북한어부 19명 억류(9/15, 러시아연방보안국)**
 - 약천후로 러시아 영해를 침범한 북한 어부 19명이 러시아 당국에 억류돼 있다고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발표, 연방보안국에 따르면 북한인 18명이 승선한 스쿠너선은 키토브이(Kitovyi)만에, 북한 어부 1명이 탄 배는 불쇼이 펠레스 섬 인근에 억류중임.
 - * 북한 어부들은 항해장비 없이 낚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다 종종 조난을 당하며, 올 들어서만 러시아 프리모르예 해상에서 구조된 북한인은 56명에 이릅니다.

- **김정일, 와병 속 러 대통령 생일에 축전(9/14, 조선중앙통신)**

- **北최태복·박의춘, 러 방문 예정(9/14, 자유아시아방송; 9/10, 러시아 소리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 워싱턴의 북한문제 전문가를 인용, “이들은 빠르면 10월중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 행사에서 북한 당국자가 당시 행사에 참석한 야코벤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에게 전달했다”고 보도
- 앞서 러시아의 소리방송도 9월 10일 알렉산드르 야코벤코 러시아 외교 차관이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마련한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 경축연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의춘 외무상과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이 10월과 11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

라. 북·일 관계

- **北, 日 해외군사작전 확대 움직임 비난(9/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미국 주도의 ‘반(反)테러전’ 참여를 구실로 한 일본의 해외군사작전 확대강화 움직임에 대해 “아시아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을 몰아오며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난

마. 기타외교 관계

- **北, 방글라데시 대사에 신흥철 임명(9/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방글라데시 주재 신임 대사에 신흥철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영남, UNESCO 사무총장 면담(9/12,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고이치



로 마츠우라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날 면담에는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배석했으며, 앞서 박의춘 외무상도 고이치로 사무총장을 면담. 지난 10일 방북한 UNESCO 사무총장은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일 귀국

3. 대남정세

● 개성공단 누적생산액 4억달러 돌파(9/15, 통일부)

- 개성공단의 누적 생산액이 4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생산을 개시한 2005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 6개월간 누적 생산액은 4억1천만 달러며, 수출액은 8천400만 달러에 달함.
- 개성공단 생산액은 2005년 1천491만 달러에서 2006년 7천374만 달러로 급증한 데 이어 2007년에는 1억8천478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느는 등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음.
- 올해에도 1~7월 생산액이 1억4천만 달러를 기록,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 증가했다. 이 기간 수출액은 2천400만 달러로 집계
- *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는 8월 말 현재 3만2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20~30대 여성이 80%를 차지
- * 8월 말 현재 79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금년 말 40여개 공장이 추가로 완공되면 총 120여개 업체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됨. 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측 근로자는 1천200여명으로 집계

● 北과 ‘이산가족’ 최우선 협의(9/14, 연합)

-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추석을 맞아 14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리는 실향민 합동경모제에 참석, 실향민들을 위로
- 그는 이어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남북간 대화가 열리면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언급

● 北, 南에 ‘역사용어사전’ 원고 전달(9/14, 통일신보)

-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지난 6월 남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남북역사용어사전’의 원고를 남쪽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측에 전달했다고 통일신보가 14일 보도
- 조희승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장은 통일신보와 인터뷰에서 “사전에 오르게 될 역사용어는 900여개에 달한다”며 “역사연구소에서는 북과 남사이의 역사인식으로 볼 때 차이가 적은 시기에 해당하는 3권(이조 후반기~3.1인민봉기)부터 집필을 시작했다”고 소개
- *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역사 용어를 연구해 사전 형태로 퍼내기로 2008년 합의

● **개성공단 기금借主 현지법인으로 전환(9/11, 연합)**

-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은 개성공단 초기 입주업체들의 숙원인 기금 차주(借主) 변경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 정부 소식통은 11일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12일 서면으로 개최, 협력기금 차주 변경 문제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며 “차주전환은 별도의 법규 개정없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로 가능하다”고 언급
- 개성 현지 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을 차주로 등록, 협력기금을 대출받은 초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그간 ‘모기업 부채비율 상승으로 회사 신용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차주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음.
 - * 그런 가운데 작년 5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차주 전환의 법적인 장애물이 제거됨. 이 법률 제11조는 ‘정부는 개성공단 현지 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
- 정부는 공단 시범단지 분양 업체와 1차 분양 업체 등 총 28개 업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760억원을 대출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고위관리 “北 핵시설 복구 본격화 확인” <日紙>(9/13)**

- 북한이 불능화 작업을 진행하던 영변 핵시설에 이번 주 들어 부품을 다시 설치하는 등 복구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미국 정부 고위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13일 보도.
- 신문은 워싱턴발 기사에서 이 고위 관리가 “북한이 최근 2, 3일 사이에 부품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재조립 작업을 시작했다”면서 “재처리 시설은 약 2개월이면 재가동이 가능하다. (플루토늄이 미추출 상태인) 사용 후 연료봉도 현장에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리리는 북한이 핵처리 작업에 착수하면 핵무기용 플루토늄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음.



● **潘 총장 “北 어떤 일에도 비핵화에 영향없길 희망”(9/12)**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1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와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를 희망했음. 반 총장은 또 북한의 영변 핵시설 복구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미 합의한 대로 핵시설을 불능화할 것을 촉구했음.
- 반 총장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실현을 위한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음. 반 총장은 6자회담 당사국들이 현재 협상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협상을 진척시킬 것을 요청했음.

● **“북핵관련 김영남 발언 긍정 평가” <美백악관>(9/11)**

- 미국 백악관은 10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도 불구하고 북한 권력서열 제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북핵관련 발언을 주목하면서 북핵회담의 미래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음.
- 데이비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권력서열 2인자가 공개발언을 통해 테러지원국 해제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북한은 진전을 원하며 6자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이 발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페리노 대변인은 “북한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서 “북한은 검증의정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약속한 다음 단계인 테러지원국 해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김영남 위원장은 이날 일본 교도통신과 회견에서 “미국은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를 지연시키고 있다. 우리는 한 단계가 아니라 2단계까지 앞서 나가 있지만 미국은 훨씬 뒤처져 있다”고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지연에 대해 비판했지만 “시간이 가고 계속 노력하면 우리는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김정일 위원장 건강 이상설과 관련된 보도를 봤다면서 “이런 내용을 모두 무시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정보에 논평할 수도 없다”고 언급한 뒤 “그런 보도와 관계없이 우리 관심의 초점은 6자회담의 성과에 있다”고 밝혔음.

● **성 김 “北 핵시설 복구하면 중대한 실수”(9/11)**

- 성 김 미 북핵담당특사(대사급) 내정자는 10일(미국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만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 김 내정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6자회담에 미



칠 영향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건강에 관한 언론보도를 확인해 줄 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누가 북 지도부에 있든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우리와 협력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6자회담 당사국들과 평양의 리더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북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성 김 “北 핵불능화 복귀위해 노력”(9/11)

- 성 김 미 북핵담당특사(대사급) 내정자는 10일(미국시간) “미국은 북한의 핵불능화 프로세스가 다시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6자회담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성 김 내정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발언자료를 통해 “북한이 일시적으로 불능화 활동을 중단하고 역행하려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 같지만, 6자회담 프로세스는 작동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핵 검증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강력한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우리의 파트너 및 북한과 협의중에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확산활동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美, 北에 핵시설 검증 요구 구두로만 전달”<WP>(9/9)

- 북한이 핵시설 검증에 응해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주겠다는 내용의 북-미간 합의를 미국이 명문화하지 않은 바람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9일 보도.
-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 이름을 삭제키로 한 당초 방침을 지키지 않자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도 고려하겠다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음. 미국 관리들은 이에 대해 “핵시설 검증에 응해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주겠다는 전제 조건을 북한 측에 분명히 구두로 전달했다”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음.
-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우린 검증 과정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북한에 분명히 알렸다”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지난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정상회의에서 이런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 “北 핵시설 복구 준비단계에 있는 듯”<미국무부>(9/9)

- 미 국무부는 8일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불능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설치한 핵시설 장비에 대한 봉인을 제거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



설에서 장비를 일부 이동시킨 것 외에 IAEA 봉인 제거 등 추가 조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봉인이 제거되거나 파괴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영변 핵시설 가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이 종전에 취했던 것과 같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현재의 평가”라고 밝혔다.

- 그는 이와 관련, “불능화 과정을 되돌리겠다고 말로 위협하는 단계, 핵시설 복구 준비단계, 실질적인 복구단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들은 아마 불능화 이전으로 가기 위해 복구를 준비하는 두 번째 단계 어디엔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핵시설을 복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리고 복구 비용이 얼마가 될지 그리고 그들이 비용을 부담하려고 할지 여부에 많은 의문이 있다고 매킨맥 대변인은 지적했다.

나. 미·북 관계

● 美망명 탈북자 첫 영주권 획득(9/16)

-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북한을 탈출, 제3국을 거쳐 미국에 망명한 탈북자에게 처음으로 영주권을 부여했다.
-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귀화국은 지난 2006년 5월 태국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 받아 미국에 도착한 30대 후반 여성 김미자씨(가명. 버지니아주 거주)에게 15일 영주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김씨 변호인에게 통보했다.
- 김씨의 영주권 획득 변호를 맡았던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변호사는 “이번 탈북자 김씨의 영주권 획득은 지난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가 부여돼 미국 망명이 허용된 이후 첫 사례”라고 밝혔다.
- 김씨는 지난 2006년 5월 미국에 도착한 뒤 노동허가권을 발부받아 1년간 지내면서 미국 생활 적응기간을 거쳐 1년 전에 영주권을 신청했으며 이번에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발부됐다고 전 변호사는 전했다.

● “美단체, 北어린이 영양개선 사업 시작” <RFA>(9/15)

- 국제의료지원단체인 미국의 샘(SAM)복지재단이 북한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대체식품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전했다.
- 샘복지재단은 국경없는 의사회 등 국제지원단체들과 협력해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대체식품 ‘샘 뉴트리넛 페이스트(SAM Nutrinut Paste)’를 300명에게 3개월간 시범 보급함. 재단측은 사전 작업을 위해 지난달 9일 관계자 4명이 황해도 지역을 방문, 2~6세 어린이 150여명의 건강 상태를 검진하고 대체식품을 우선 보급했으며, 몇차례 더 방북해 식품을 공급받은 어린이들



의 영양개선 효과를 관찰한 뒤 구체적인 지원량과 기간 등을 정할 계획.

- 앞으로 북한 어린이 5만명에게 대체식품을 공급할 계획인 샘복지재단은 2004년부터 북한 전역의 5천개 보건소에 필수 의약품을 담은 ‘사랑의 왕진가방’ 1만개를 보급하고 의료 기자재와 약품을 전해주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평양에서 어린이와 임산부의 영양제 생산을 위한 ‘샘사랑 평양제약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 미 의회에서 ‘김정일 상태’ 긴급 브리핑 열려(9/14)

- 미국 의회에서 다음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이 열린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RFA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김 위원장에 대한 정확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 국무부가 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해 브리핑을 하도록 요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 RFA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이후 미 의회의 첫 공식 대응이 될 이번 브리핑을 통해 미 의회는 만약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전망될 경우 미국 정부의 위기대응 대책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는 또 “미 의회는 북한 붕괴에 대비한 대책을 미국이 중국과 논의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이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행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바마, 대화통해 북한문제 해결” <리처드슨> (9/13)

-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대화를 통해 북한문제를 다룰 준비가 돼 있다고 오바마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주지사가 12일 밝혔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날 CBS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바마 후보의 대외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바마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인) 차베스 문제와 북한 문제를 대화를 통해 다룰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것은 매우 힘든 대화이겠지만 현명한 대화”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것이 오바마와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 대외정책 접근법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면서 “매케인의 대외정책은 부시 행정부의 판박이정책이지만, 오바마는 세계가 미국에 원하는 도덕적, 정치적, 경제적 지도력을 갖도록 이끌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 ‘UNDP 북한사업’ 이르면 내년초 재개(9/11)

- 자금 전용 의혹으로 지난해 취소됐던 유엔개발계획(UNDP)의 북한사업이 이르면 내년 초 재개될 전망이다. UNDP와 유엔인구활동기금



(UNFPA) 집행이사회는 10일(현지시간) 비공식 회의를 열어 UNDP가 제안한 5단계 로드맵을 승인했다고 유엔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밝혔다.

- 이 5단계 로드맵은 ▲UNDP와 주유엔 북한대표부간 양자협의 개시 ▲로드맵에 대한 집행이사회 승인 ▲UNDP 실무팀 평양 파견 ▲4단계로 UNDP-북한간 협의 결과 집행이사회 보고 및 사업재개에 대한 승인 확보 ▲UNDP 북한 사무소 재개소 및 사업 재개로 구성돼 있음.
-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2단계인 집행이사회 승인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팀이 평양에 파견돼 북측과 협의를 통해 사업재개에 대한 승인을 확보하는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고 말했다.

다. 중·북 관계

● 北-中 교역규모 올해 20억불 돌파 전망(9/14)

- 북중 양국 규역규모가 올해에도 큰 폭으로 증가해 20억달러 수준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 최근 중국 상무부 아주사(亞州司)에서 발표한 2008년 1~7월 대(大) 아시아 교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7개월 간 북중 교역규모는 총 14억2천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의 대북한 수출은 10억100만달러로 35.2% 증가했으며, 수입은 4억2천300만달러로 24.3%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양국 규역규모는 지난해 약 19억8천만달러에서 올해는 무난히 2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1~7월 중국의 대북무역 흑자는 4억달러에서 5억7천800만달러로 증가, 양국 간 무역역조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한중 규역규모는 총 1천112억5천800만달러로 북중 교역규모의 78배에 달했다.

● 中, 北에 韓美日 우려 전달한 듯(9/9)

- 중국은 핵시설 복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국과 미국, 일본이 표시한 우려의 메시지를 북한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한국과 미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와 베이징에서 회동한 데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주중 대사와의 회동 6자회담의 당면 상황과 다음 단계의 노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토론을 했다”고 말해 우 부부장과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와의 회동 사실을 확인했다.
- 우 부부장은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지난 6일 방중하지 않음에 따라 최 대사와 대신 회동, 한국과 미국,



일본이 표시한 우려와 함께 핵 검증 요구안(프로토콜) 수용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장 대변인은 이어 “6자회담에서 지금까지 성과를 이뤄온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각측이 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면서 “각 당사국이 계속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2단계의 남은 행동을 마무리하고 6자회담을 진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자칭린, 北대사관서 북한 건국 60주년 축하(9/9)

-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북한 건국 60주년 기념일(9.9절)을 하루 앞둔 8일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경축 행사에 참석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 자칭린 주석의 이 경축 행사 참석에 앞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연명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내각 총리에게 공동으로 축전을 보냈다. 이로써 중국은 권력 서위 1-4위까지의 지도부가 모두 북한의 건국 60주년에 축하를 보낸 셈.
- 자칭린 주석은 이날 기념식에서 북한은 지난 60년간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 아래 경제건설, 사회발전, 그리고 대외관계 등 다방면에서 현저한 성취를 이룩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중국은 북·중간의 전통적인 우호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후진타오, 북한 건국 60주년에 축전(9/8)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북한 건국 60주년 기념일(9.9절)을 하루 앞둔 8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축전을 보내 건국 60주년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관영 신화 통신이 보도.
- 후 주석은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연명으로 김정일 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내각 총리에게 공동으로 보낸 축전에서 “북한의 건국은 조선인민이 주인이 되어 사회주의 국가의 참신한 도로를 건설한 지표”라고 말했다. 후 주석은 “북한은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그리고 노동당의 지도 아래 자력갱생과 고난 분투를 통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현저한 성취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 이어 “우리는 이러한 성취에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며 북한이 자국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모색해 경제사회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대외 교류 확대 등 다방면에서 새로운 성취를 이룩하기를 기원한다”고 후 주석은 밝혔다.



라. 일·북 관계

● **日 관방장관 “북한 정세 주시중”(9/10)**

- 일본의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10일 북한의 건국 6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불참한데 대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관계 각국과 연대해 북한내 정세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 마치무라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세는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 등 여러가지 정보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논평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음.

마. 러·북 관계

● **러시아, 영해 침범 북한어부 19명 억류(9/15)**

- 약천후로 러시아 영해를 침범한 북한 어부 19명이 러시아 당국에 억류돼 있다고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밝혔음. 연방보안국에 따르면 북한인 18명이 승선한 스쿠너선은 키토브이(Kitovyi)만에, 북한 어부 1명이 탄 배는 볼쇼이 펠레스 섬 인근에 억류돼 있음.
- 연방보안국은 두 척의 배가 약천후로 러시아 국경을 침범했다고 말했음. 러시아 당국의 조사 후 북한 어부들과 선박은 북한 당국에 인도될 예정.

● **“北 최태복·박의춘, 러 방문 예정”<RFA>(9/14)**

-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박의춘 외무상이 곧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 워싱턴의 북한문제 전문가를 인용, “이들은 빠르면 10월중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 행사에서 북한 당국자가 당시 행사에 참석한 야코벤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 앞서 러시아의 소리방송도 지난 10일 알렉산드르 야코벤코 러시아 외교 차관이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마련한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 경축연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의춘 외무상과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이 10월과 11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SPI회의 개최..동맹현안 조율(9/10)

- 제1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가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렸음. 양측은 오후 2시45분까지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유엔사(UNC) 정전관리 책임조정 등 동맹 현안의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평가. 또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다룰 안전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양국 간의 견 차이가 큰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회의는 19차 SPI회의이자 ‘프리 SCM’의 성격을 가진 회의였다”며 “다음달 17일 SCM을 열기로 잠정 합의했고 안전은 실무 차원에서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그는 “양측은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처음으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 나타난 보완·발전시킬 과제들을 스크린했다”면서 “앞으로 전작권 전환을 애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 한미 SPI회의 개최..“내달 안보협의회 안전 조율”(9/10)

- 제1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가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렸음.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조정 등 동맹현안의 추진현황을 함께 평가하고 점검. 특히 다음달 16~17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의견차가 큰 방위비분담금 문제도 조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됨.

● 유명환 “한미FTA, 표결시 美의회 통과 승산”(9/8)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미국 의회 비준동의안 처리 전망과 관련, “보팅(표결)에만 들어가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음.
-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 대선 등 정치 상황에 따른 미국내 한미 FTA 비준 전망에 대한 한나라당 정욱임 의원의 질문에 “한미 FTA가 미 국익에 도움된다는 걸 민주당도 인식하고 있고, 버락 오바마 후보가 비록 비판적이지만 역대 미 정부가 체결한 FTA가 (의회에서) 부결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음.
- 그는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 아이러니하지만 ‘레임덕 세션’에서 FTA가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존 매케인 후보가 당선



되면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는 의회가 오히려 더 강한 입장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 **샤프, 美증원군 한반도 전개절차 개선 요구(9/8)**

- 월터 샤프 한미연합군사령관(대장)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 본토 등지에서 파견될 증원군의 신속 전개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유사시 미 증원군의 신속한 전개가 어려울 것이란 한국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 군의 한 소식통은 8일 “샤프 사령관은 지난달 실시된 을지프리트엄가디언(UFG) 연습기간 한·미 양국 지휘관들의 토의시간에 미 증원군의 전개 절차 개선을 위해 본국에 개인 서한을 보내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나. 한·중 관계

● **한·중 영사국장회의 10일 베이징 개최(9/8)**

- 제10차 한·중 영사국장회의가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외교통상부가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중국측에서 웨이웨이 외교부 영사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 시증 발급절차 간소화와 복수사증 발급 확대 등 양국 간 영사분야의 주요 관심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 한·러 관계

● **柳외교, 정상회담 논의차 방러(9/9)**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올 가을로 예정돼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사전준비를 위해 9일 오전 러시아로 출국.
- 유 장관은 11일까지 예정된 러시아 방문기간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세르게이 프리호드코 대통령 외교보좌관과 각각 회동, 이 대통령의 방러 일정 및 의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와 극동시베리아 개발협력 등 양국간 협력증진 방안과 북핵문제 등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
- 유 장관은 이와 함께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와의 오찬간담회, 동포 대표 만찬 간담회 등의 일정도 소화함. 유 장관은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12일 몽골을 찾아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갖는 한편 앙흐바야르 몽골 대통령과 바야르 총리 등을 예방한 뒤 14일 돌아올 계획. 유 장관은 주요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국의 외교정책과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몽골 진출 한국 기업의 현지 자원 개발 참여 등에 대한 몽골 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韓-러 경제 공동위 22~23일 서울 개최(9/8)

- 올 가을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9차 경제공동위원회가 오는 22~23일 서울에서 개최.
- 8일 주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회의 양국은 극동·시베리아 개발, 우주개발 협력, 자동차, 건설, 농·수산, 에너지, 교통 등 경제 협력 분야 전반에 걸쳐 논의할 예정.
- 한·러 경제 공동위는 1년에 한차례 모스크바와 서울에서 번갈아가며 열리는 경제 전반에 관한 양국 정부 간 최고 협의체로 러시아는 환경·기술·원자력감독청을 대표로 경제개발부, 외무부, 에너지부, 정보통신부, 교통부, 천연자원부, 농업부, 연방우주청 등이 참여하며 한국에서는 경제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러시아 측 카운터파트 기관들이 참석하게 됨.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지난해 15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 5년 사이 5.8배 증가했고 올해는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러시아는 주로 철·금속 등 원료·소재를, 한국은 자동차와 기계장비, 전자·화학제품, 섬유 등을 서로 수출하고 있음. 한국은 러시아가 2013년까지 추진 중인 극동·바이칼 프로젝트 가운데 철도, 에너지, 항만, 해운, 항공, 어업 등의 분야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라. 미·중 관계

● 美-中 통상무역위원회 내주 개최(9/11)

- 미국과 중국은 내주 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양국 간 무역 불균형과 국제경제 성장둔화, 위안화 절상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상무역위원회(JCCT)를 개최한다고 미 상무부가 10일 밝혔음.
- 올해로 25주년을 맞는 미·중 통상무역위는 오는 16일 남부 캘리포니아의 요바 린다 시(市)에 있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기념도서관에서 개최되며 미국 측에서는 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과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측에서는 경제와 무역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등이 참가할 예정. 에드워드 샤퍼 미 농무장관도 이번 회의에 참석할 계획.
- 중국은 현재 인플레이션을 상승과 거시경제의 불균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은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 물가상승 압력에 시달리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양국은 고유가와 곡물가격 급등, 금융시장 불안정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상호 무역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려고 할 것으로 보임.



마. 미·러 관계

● 푸틴, “미국이 먼저 러시아와 관계개선 나서야”(9/14)

- 이번 그루지야 사태로 미·러 관계가 냉전 이후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러시아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미국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노력을 촉구했음.
- 푸틴 총리는 13일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위기인 상황에서는 대립 보다 상호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그루지야 사태로 훼손된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미국이 러시아의 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는 이상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총리는 제1, 2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와 미국은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항상 함께 해 왔다”며 “러시아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고 있듯이 미국도 역시 그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그러면서 푸틴 총리는 “러시아는 미국인의 여권 사본이 그루지야와 두 자치공화국 사이 ‘완충지대’에서 발견되는 등 미국이 이번 그루지야 사태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안에 따라 현지 주민과 평화유지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감시단원 말고는 완충지대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서 “우리는 미국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음.

바. 중·일 관계

● 中, 일본의 중국인 여공 학대여부 조사(9/9)

- 중국의 여공들이 일본에서 노동력 착취와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중국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장강상보(長江商報)가 9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활동하는 중국 작가 모방푸(莫邦富)는 최근 화교 신문인 신화교보(新華僑報)에 중국 여공 6명이 일본에서 노동력 착취와 함께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 그에 따르면 후베이(湖北)성 황스(黃石)시 출신의 여공 6명은 2005년 중국 인력 소개업체를 통해 일본의 야마나시(山梨)현의 세탁공장에 파견돼 일을 시작했음. 모방푸는 여공 6명은 교육 기간을 채운 뒤 실습생 신분으로 전환된 200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밤 12시까지 주말도 없이 격무에 시달려야 했다면서 이들은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월급 인상을 요구하며 항의하다 3명은 부상하고 나머지 3명은 중국으로 쫓겨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사. 기타

●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9/11)

-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국빈방한 중인 트라이안 바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하자는데 합의했음.
-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 1990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발전을 평가한 뒤 양국 관계를 기존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단계 격상시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음. 이에 따라 양국간 협력은 기존 경제, 외교 등에서 정치, 안보, 국방,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심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음.
- 양 정상은 또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루마니아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에너지 및 IT(정보기술)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이 대통령은 루마니아 정부가 추진중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콘스탄차 항만 컨테이너부두 건설 및 운영사업 등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음.
-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바세스쿠 대통령의 방한기간 체결되는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루마니아에 투자·진출하거나 현지기업 활동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루마니아 정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음.

● 소말리아서 한국인 8명 피랍(9/10)

-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한국인 8명이 탑승한 화물선이 10일 오후 4시경(한국시간) 해적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적의 선박에는 한국인 8명과 더불어 외국인도 다수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음. 피랍자들은 현재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한-몽골 16일 총리회담(9/10)

- 한승수 국무총리와 산자긴 바야르 몽골 총리가 오는 16일 공식회담을 갖는다고 국무총리실이 10일 밝혔음.
- 한 총리와 바야르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관계의 발전방안과 국제무대에서 협력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조약서명식을 가질 예정.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바야르 총리는 지난 6월 취임이후 첫 해외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했다"면서 "양국 우호협력 관계에서 한 차원 더 높은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음.
- 바야르 총리는 16일 방한,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국회의장 예방, 대한상의 주최 오찬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 출국할 예정.

● 한-프랑스 방산군수공동위 파리서 개최(9/8)

- 한국과 프랑스는 8일부터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11차 방산군



수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 이번 회의에는 김종민 방사청 차장과 자크 드 라주지 프랑스 병기본부 국제개발본부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석.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 측은 잠수함 통합군수지원(ILS)개발 기법과 비행 시험요원 상호교환 협력에 관해 프랑스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프랑스 측은 한국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을 설명하고 두 나라간 국방획득 장비에 대한 가격정보 교환 협정 체결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 양측은 두 나라간 중요 현안사업으로 진행중인 한국형 헬기(KHP)사업의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 김종민 차장은 프랑스 병기본부를 방문, 방사청과 병기본부간의 협력관계 증진 및 국내업체의 제3국 수출에 필요한 프랑스 수출승인(E/L) 절차 간소화를 당부할 계획.

☀ 국제관계연구실 제공